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에 이재명 '文정부 차별화' 나서나

윤석열에 뒤지는 여론조사 잇따라
"당 중심서 후보 중심으로 가야"
부동산 사과·청년정책 책임론 등
최근 잇단 차별점 부각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면서 민주당이 분주해지고 있다.

9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을 전후해 진행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고, 국민의힘은 창당 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도 하락했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반영된 만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추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만한 일이지만, 선거전이 한창 진행돼야 할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여당과 선을 긋는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선 이후 선대위 구성 등에서 '당 중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후보 중심'으로 무게 추를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이 후보가 민주당의 틀 안에 갇힌 선대위를 구성했다면, 앞으로는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색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민주당 내부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데,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며 다시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찍어주겠느냐"며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인데 (일정 소화도) 후보는 후보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차별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에는 선대위 회의에서 "청년이 희망을 잃은 데에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한편 "'민주당이 완전히 새 정당이 돼 가는구나,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당으로 거듭나겠구나' 기대를 하도록 정책·제도 보완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재명표 정책'의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차별화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보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원팀 선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당내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이 더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차별화론이 부상하면 균열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 지지율과 이 후보 본인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차별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책이나 행보에 있어서 차별화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컨벤션 효과…윤석열, 모든 조사 이재명에 앞서

리얼미터 46.2%vs 34.2%
5개 조사 오차범위 안팎 우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의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 지난주 조사 대비 11.8%포인트 상승한 46.2%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0.4%포인트 하락한 34.2%로 나타났다.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격차는 12.0%포인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0.3%포인트 상승한 4.3%,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0.7%포인트 내린 3.7%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전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TBS, 글로벌리서치-JTBC, 입소스-한국경제, 넥스트리서치-SBS, 한국리서치-KBS 등 5개 여론조사 가운데 3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선 격차로 앞섰고, 나머지 2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실시된 이들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를 4.0~1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 이강윤 KSOI 소장은 전날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서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5개 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임기 6개월 남아…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

"코로나 극복·경제회복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가 6개월이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상회복을 시작 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 반년 동안 코로나 방역과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모두의 노력으로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다.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율 속에서 더욱 절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도 더욱 중요해졌다.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상회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동안 잘해왔듯이 우리 모두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힘을 모은다면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내고 K방역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7박9일간의 유럽순방 결과에 대해서는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과의 경제협력 폭을 크게 넓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 했고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며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미디어특위 명단 확정…언론법 논의 재개

여야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특위)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확정된 미디어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의원이 각각 맡는다. 민주당 측에선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 측에선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디어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국감이 있어서 국감에 매진하는 관계로 미디어특위 위원들 위촉이 늦어졌다"며 "비교섭단체 1인은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와 미디어특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꾸려 약 한 달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1 국제 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프라인 전시회 운영

- 기 간 : 2021. 11. 24 ~ 25(2일간)
-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3전시장
- 규 모 : 70개 업체, 12개 기관, 160개 부스
- 해외바이어 초청 : 20개국 200명(오프라인 100, 온라인 100)
- 주요내용 - 2021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2일간)
  - 해외 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2일간)
  - 광융합산업 신기술·제품 개발 우수업체 및 유공자 시상
  - 제 10차 광의료 심포지엄 및 2021 테크데이
- B2B, B2C 온라인 홍보 지원

[B2B]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	· 실시간 라이브 영상 제작후 Aving 채널 보도 · 전문 MC가 신청기업당 3~5분 영어/한국어 인터뷰 및 홍보
[B2C] 실시간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 온라인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 대상 실시간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홍보 및 제품 판매 · 전문 MC가 실시간 방송으로 온라인제품 홍보 및 판매

※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홍보체계 강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운영

- 기 간 : 2021. 8. 10 ~ 지속
- 장 소 : photonicskorea.org 홈페이지
-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구성
  - 기업소개 : 기업정보 및 제품 홍보영상, 카탈로그
  - 온라인 수출상담 : 온라인 전시관 활용 바이어 및 참가기업 매칭
  - 온라인 세미나 : 라이다·PLC 기술교류 세미나 및 광융합산업 기술교류 발표회
    온라인 업로드를 통한 정보공유
- 온라인 전시관 기능
  - 중·장기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지원
  - 비즈니스 매칭을 활용한 글로벌 광융합 바이어 통합관리
  - 광융합 공동브랜드, 시범사업, 특허, 기술제휴 등 기업 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
  ※ 비대면 온라인 상담 종합상황실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 문 의 : 광융합산업본부 사업운영부 ☎ 062-605-9652~4

주관 KAPID 한국광산업진흥회